

## 찬송가 246장 -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 내 주신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 (후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 찬송가 545장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1.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023년

추모 예배



# 추모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 . . . . **인도자**  
지금부터 故 000 씨(아버지, 어머니)의 O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고백** . . . . . **사도신경** . . . . . **다같이**

**찬 송** . . . . . **246장 (통일 221장)** . . . . . **다같이**

**기 도** . . . . . **가족 중 한 사람**

**성경말씀** . . . . **히브리서 11장 1-12절 (신약 364쪽)** . . . **말은이**

-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 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 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나눔** . . . . . **‘인생의 발자취’** . . . . . **말은이**

**기 도** . . . . . **인도자**

**찬 송** . . . . . **545장 (통일 344장)** . . . . . **다같이**

**주기도** . . . . . **다같이**

# 말씀나눔

## 인생의 발자취

인생은 한 생애를 통해 발자취를 남기고 갑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죄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사람들입니다. 아담, 하와, 가인, 사울, 가룟 유다 등과 같은 발자취입니다. 이들은 죄의 발자취를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둘째, 무의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간 자들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이 목표도 성취함도 없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므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살고 갔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인생이 참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인류 구원이라는 거룩한 일을 남긴 발자취였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야 하는 귀중한 인생의 발자취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사랑의 발자취이며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가신 인생의 선배들의 삶을 묵상하며 남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준 희생의 삶을 묵상하고,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걸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